

# 콘크리트 굳지도 않았는데...공정 단축 위해 무리한 작업

‘화정 아이파크 붕괴’ 업체 3곳 압수수색...속도전 따른 부실 시공 드러나

골조공사 마무리 안된 채 인테리어 작업 ...현장소장이 공정 재촉하기도 노동계 “펌프카 업체가 레미콘 계약... ‘물랑떼기’ 방식 불법 하도급 의혹”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공사의 공기 단축을 노린 관행적 건설 행태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타설한 업체, 펌프카(콘크리트를 실어 고층까지 타설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레미콘 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養生)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토록 작업자들을 투입시켰다는 시공사측 요구가 있었다는 현장 작업자들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이들 업체 3곳은 합법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물랑떼기’ 의혹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세부적 계약 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물랑떼기란 시공사와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업체 간 직접 계약이 아니라 시공사가 관련 업무를 골조공사업체에 넘기면 여기에서 펌프카 업체를 통해 레미콘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하도급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 단가를 깎는 일이 생기고 결국 콘크리트 원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물랑떼기’ 방식 계약의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와관련, 불법 의혹을 14일 기

자회견을 통해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현재 해당 업체들의 경우 “사실 무근으로 물랑 떼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한 상태다.

시공사측의 공정을 서두르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정호(45)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통 최고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창호든 소방설비든 따라 올라간다. 그런데 현재 실종되신 분들은 소방·창호·등 타설이 완료된 후에 작업하셔야 할 분들”이라며 “이 현장은 5층 올라가 때마다 설비작업자가 따라 올라갔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작업 현장에 동료들이 투입됐다는 노동자들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측 현장소장이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펌프카 업체측도 “회사 사정이 있는 날에도, 시공사측이 일정을 절대 미루지 않고 예정된 날 장비 투입을 요구했다”며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원정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경찰 뿐 아니라 노동청도 사고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안전 조치 여부 등 고질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조사가 나선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사고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콘크리트 골조공사 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눈 속 수색 작업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3일째인 13일 오후, 한 구조대원이 수색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바닥면 주저앉고 “툭” 소리라며 거푸집 부서져

붕괴 직전 공사현장 영상 보니

작업자들 서둘러 계단 통해 대피 “펑” 굉음 들리고 모조리 무너져

“저기 무너졌다. 거기도 떨어졌네.”

13일 공개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동영상은 사고 직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2개 영상은 모두 2분 10초 가량 되는 분량으로, 중국인 작업자들이 찍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작업자가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5분 전후로 추정되며 201동 39층 꼭대기에서 바닥면(슬라브)에 해당하는 곳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담겨 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사람의 목소리를 물어버릴 만한 강풍이 불고 있었다.

콘크리트가 쌓인 바닥 면은 평평해야 했지만, 가운데가 움푹 패어 주저앉아 있었고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꺾이듯 들리는 장면이 보였다. 작업자들도 상황을 알고 짜증을 냈다.

현장 작업자들은 이후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13일 공개된 광주시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공사현장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작업 관계자가 광주 경찰청에 제공한 영상에는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사고 10여분 전으로 추정되는 현장 상황이 담겨 있다. 타설중인 콘크리트가 주저앉거나 거푸집이 부서지는 장면(흰색 점선 안)이 보인다. <독자 제공>

하고 보양 전막을 걸어냈다고 한다. 그 순간 타워크레인 방향에서 ‘펑펑’ 소리가 났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슬라브)이 천천히 10cm가량 내려앉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은 서둘러 계단을 통해 대피하기 시작했고 ‘펑’ 하는 굉음이 들리더니, 1층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그들이 작업했던 곳이 모조리 무너져 사라진 상태였

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붕괴가 진행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거푸집이 들리고, 바닥이 내려앉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슬라브 밑을 받치는 동바리(비계기둥)가 힘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대리 수술’ 의사·간호조무사 6명 징역형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적후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 A(61)씨와 의사 B(52)씨, 간호조무사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2)씨, 간호조무사 F(43)씨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의료 법률 체계에 어긋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부 봉합만 맡긴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3>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3> <p>기초반, 중급반</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gt; 9억 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h1>010-6670-9800</h1>			